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토지·지적관리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

정읍시가 지적행정과 토지관리에 있어 도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며 전북자치도 주관 2024 토지·지적관리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 정보,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개발공시지가 적정 고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와 공간정보 업무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와 선진적 지적행정 구현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개발공시지가 적정 고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와 공간정보 업무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이번 선정으로 받은 시상금의 일부를 정읍시민정화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다문화작은도서관
전북 운영평가서 장려상

정읍시 다문화작은도서관이 전북자치도에 주관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0개 공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환경과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 등을 평가해 최우수도서관 1곳, 우수도서관 2곳, 장려도서관 3곳을 선정했다. 시 다문화작은도서관은 2015년 개관 이후 10여 개국의 도서 8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매년 40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정읍의 대표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양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기자

격포 관광개발사업 진입도로 기공식

부안군, 총사업비 민자 1221억원 투입 2026년 준공 목표... 골프장 등 건립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대일변산관광개발(주)(회장 김호석)은 30일 부안영성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골프장 등) 진입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약 4년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난 2024년 8월 변산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했으며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호석 대일개발그룹 회장 김주한 대일변산관광개발 대표이사, 김은정 대일내장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김주엽 대일아일랜드 대표이사,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이강세 부안군의회 부의장, 김두례·김원진·박태수·김광수·김형대·이한수·이현기 부안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일변산관광개발과 군은 진입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골프장 및 리조트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첫 단계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예정이다.



부안군과 대일변산관광개발은 30일 부안영성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진입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총 1221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안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문화·관광·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생안정 소비진작 위한 특별대책 마련 시행

고창군, 카드형 고창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상향

고창군이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안정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사랑상품권 할인 소상공인 운전자금 대출 조기집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먼저, 카드형 고창사랑상품권을 1월 한달간 구매시 10% 할인인 적용하고, 사용액의 10%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하여 최대 20% 할인지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출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3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줄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 소상공인운전자금 대출 역시 1월2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자금의 빠른 공급을 위해 전북신보 고창지점에서 상담 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은 지금까지 읍면에서 분기별로 신청 접수하여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통보하면, 대

상자가 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용자 절차가 진행되어 필요자금 적시 제공이 어렵다는 불편 사항이 있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전년도 매출액 3억원이하)'도 최대 30만원 지원을 2025년에는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 대책으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보존 · 발전 5개년 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가제

고창군은 지난 27일 향후 5년간의 생물권보전지역 보존과 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열린 용역보고회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환경 및 생태 전문가와 활동가, 주민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가 참석했다. 고창군의 우수한 생태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과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위원들은 주민주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생태관광지를 통한 주민 소득화 등 각각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5년간의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2013년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활동을 통해 2024년 7월에는 10년 간격으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가 생물권보전지역 보존·발전·지원기능과 활동 이행 등의 MAB국제조정이사회의 기준을 충족하여 그 지위를 연장받게 되었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용역보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통해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이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잡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 11곳 선정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내년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로 11개 마을(고창읍 꿈에그린·화산, 고수면 청계, 상하면 회정, 해리면 구동호, 대신면 산정·덕천, 성내면 석양, 신림면 유점, 부안면 안현·진마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동안 마을 주민의 역량강화와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농촌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고창군은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14개 읍·면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주민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거쳐 최종 11개 마을을

선정했다. '마을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든다'는 주제가 높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마을특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올해 마무리된 '성송면 내원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역량강화사업 뿐만 아니라,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다른 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27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시민과 농가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교육은 시와 정읍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최근 선발된 피해방지단원 30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포획 활동과 관련된 법, 지침, 그리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포획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 아래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로드킬 방지,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포획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시는 올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함께 피해농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으로 펼쳤다. 그 결과 고라니 1214마리, 멧돼지 370마리, 까지 6669마리를 포획했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131명의 농가에 총 5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55농가에 2억 3000만원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66명에게는 1500만원 상당의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를 제공했다. 이화수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충격을 사용하는 만큼 산과 인접한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지역 활성화 앵커시설 성장

부안군은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4년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문화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며 부안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1층 상생협력상가 11호와 여행자센터, 2층 전시실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3층 마실영화관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2024년 초 개관, 시설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 8월부터 전문업체와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의 장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안군은 '문화와 상생으로 연결되는 사람 중심의 공간'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센터 내 각 공간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

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자기공방, 떡공방, 베이글카페, 뷰티샵 등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올해 하반기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는 북컬이네 집들이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 전시 및 소일 나무 이벤트' 등의 행사와 더불어 2층 전시실에서 해오름유치원, 독립기념관 등 여러 기관을 초대해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기간 동안만 4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